



백운산(483m) 중턱에 자리한 학서암에서 바라본 생일도 주변. 섬들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어 가끔 바다를 건너는 뱃대지와 고라니를 볼 수 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청산도의 논.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 2013년 구들장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을 거치면서 청산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 관광지로 부상했다.

‘변화’ 바람 탄 생일도

지 난 2005년의 일이다. 금당도~평일도에 이어 완도 동쪽 군도(群島)의 3번째 큰 마디인 생일도에 ‘괴물 소동’이 벌어졌다. 1년 여간 염소 수십 마리가 섬 곳곳에서 사라졌고, 주민들은 그 ‘괴물’의 정체는 알 수 없어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한 잠 뒤 광주일보 보도를 통해 괴물의 정체는 곧 180~200kg짜리 뱃대지로 밝혀졌지만, 평화롭던 섬마을은 순식간에 전국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주목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사실 생일도는 뱃대지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임에는 틀림없다. 섬 치고는 높은 해발 483m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깊은 골짜기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일도 인근의 유·무인도와 촘촘하게 연계돼 있어 뱃대지가 쉽게 바다를 건너 서식지를 옮겨다닐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이 뱃대지는 2006년 광주·전남 밀렵감시단 소속 전문 염소에 의해 소탕되기 전 바다를 유유히 헤엄쳐가는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이후 생일도는 과거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금당·평일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에서 떨어져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평호(58) 생일면장의 설명이다.

전남도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사업의 2015년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발달 못한 자연을 지닌 덕분일 것이다. 472세대 88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일도의 전체 면적은 15.0㎢로, 완도군의 3.8% 크기다. 섬 외형이 전체적으로 동글어 해안선도 37.2km에 불과하다. 해안에는 아기자기한 자연들이 자리하고 있다. 길이 500m 폭 150m 정도의 모래사장도 동백숲을 가진 금곡해수욕장, 검은돌과 원석이 깔려 있는 길이 500m 폭 50m의 용출리 갯물해안이 대표적이다.

백운산 중턱에는 섬에서는 보기 드문 학서암이 있다. 1719년 창건된 이 절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해상은 장관, 그 자체였다. 이 학서암을 중심으로 백운산의 능선과 허리를 두르는 생일돌레길이 7개 구간 14.8km 조성돼 있고, 용출리 갯물해안에서 금곡해수욕장까지 금머리 갯길 3.5km가 있는데, 완도군은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25억원을 투입해 이를 제대로 정비할 방침이다. 깊은 산세 덕에 물이 풍부한 생일도는 인구 규모나 면적이 큰 평일도에 물을 공급해줄 정도다.



생일면사무소는 섬 이름 ‘생일’을 마케팅 수단으로 해 선착장 건물에 케익 조형물을 올렸다.

생일도에는 서성당제와 풍물굿이, 이 섬에 속한 덕우도에는 덕우당제의 전통이 남아 있다. 특히 당제와 일종의 풍어제인 갯제로 나누는 덕우당제는 음력 1월 1일과 1월 7일 각각 열린다고 한다.

최근 생일도 역시 변화가 엿보인다. 노화도와 보길도 등에서 시작된 전북 양식 ‘바람’은 생일도에도 불어왔기 때문이다. 전북 양식과 함께 다시마, 미역, 청각 등을 4개월 내내 채취하는 주민들의 몸은 고단하지만 소득은 보장되고 있다.

몸이 아파 고향에 내려와 면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계선(37)씨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마을 간, 주민 간 경쟁심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차를 바꾸면 옆집, 옆집도 새차를 사는 식의 경쟁이다.

그만큼 주민의 삶이 풍족해졌다는 반증이다. 금곡해수욕장 인근에서 청각을 팔리는 이주 여성을 만났다. 베트남에서 온 그녀의 이름은 토디에 올린, 한국 이름은 김미주(29)씨다. 19살의 나이에 시집와서 10년이 지나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됐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스스럼없이 트럭 가득 쌓인 청각을 받아 좋은 바닥에 널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전북, 청각 등을 양식해 상당한 ‘부자’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3년 전부터 고향도 안 가고 돈 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번다”며 “바다 일이 힘들어도 움직이면 돈은 들어온다”고 말했다. 영락 없는 어촌 아낙네의 말투다. 따뜻한 기후 덕에 비파나무와 글자나무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특징이다.

‘블루오션’ 다도해 <30>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완도편 - 생일도·청산도



생일도

높은 산·깊은 골짜기·300년 된 절
뱃대지 뛰놀던 때부터 많은 섬에서
전복·다시마 키우는 풍족한 섬으로

청산도

‘단골 관광객’ 느는데 주민 감소세
젊은이 돌아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풀등해변 등 ‘여름 자원’ 홍보 필요

생 일도에서 완도 군도(群島)의 중심인 청산도로 가는 길은 꽤 멀다. 생일도에서의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완도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완도읍으로 가서 다시 청산도행 철부선에 몸을 실어야 했다. ‘느린 섬’ 청산도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논, 돌담길, 초분(시신을 풀로 덮어 무덤을 만든 뒤 1~3년이 지나 묻는 섬 고유의 매장법), 옛 그대로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를 한 데 엮은 ‘슬로길’은 이미 전국화·세계화됐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청산도 지도 한 장 손에 들고 귀에 이어폰을 한 채 주위를 살피는 20~30대부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왔다는 60대 아줌마 부대까지 청산도 곳곳을 화려한 색의 나들이복, 등산복을 입은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연간 34만명이 찾은만큼 청산도는 스타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33만8872명, 올해는 지난 8월말 현재 29만3033명이 ‘입도’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산도는 운선도의 섬 보길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하지만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 2013년 구들장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을 거치면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뒤 완도군·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제1의 섬 관광지가 됐다. 서편제, 봄의 왈츠, 여인의 향기, 피노키오 등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도 일조했다.

하지만 현재 1372세대 2536명이 거주하는 청산도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귀도’로 이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1.95㎢의 면적으로 완도군 전체의 10.6%에 해당하는 큰 섬, 청산도는 여전히 농수산업에 주민 대부분인 87.6%가 종사하고 있지만, 인기 관광지인만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11.9%에 달한다. 많은 외지인들이 찾으면서 숙박 및 편의 시설은 비교적 잘 갖춰진 편이다. 양질의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한 건축물들도 눈에 들어온다. 폐교된 청산중학교 분교를 재건축한 느린섬 여행학교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청산도산(産) 어류, 농산물로 차린 밥상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과거 속의 청산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신라 828년 장보고 부하였던 한내구의 묘(지석묘)일 것이다. 음력 정월 초 3일 당제를 지내는 데, 일제강점기인 1935년 도굴된 적도 있었다.

봄 유채꽃, 가을 코스모스로 뒤덮이는 청산도는 여름에는 인파가 줄고, 선박 운항이 어려운 겨울에는 외지인의 발길이 딱 끊긴다. 신흥리 풀등해변, 진산리 갯물해변, 지리 청송해변 등 ‘여름 자원’이 비교적 덜 알려진 점도 있다.

‘정상’의 자리에 있는 청산도는 이제 또 한 번 비상할 것인지, 아니면 하향곡선을 그릴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 반복해서 찾는 ‘단골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어내고, 감소하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산도에 진입하기 전 방파제 양측에서 있는 하얀색 등대와 붉은 색 등대. 청산도를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으나 주민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태리 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소파 식탁 보상판매

타사상품 포함 www.hong79.com ☎ 1899-0240 11월 28일까지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